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인문사회계 모의평가 문제지

감독관확인
㉠

지원학과(학부)		응시번호		성명	
----------	--	------	--	----	--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란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 수정 시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 문항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행위자는 구조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 행위자는 구조 안에서 행동한다. 그러나 행위자는 선택할 수 있다. 구조는 행위자의 가능한 행동을 제한하거나 속박한다. 그러나 구조는 행위자가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나) 우리나라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주변 국가의 정세에 따라 그 위상이 시대별로 달라져왔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장이 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세계의 중심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한반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중국 횡단철도와의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건설, 항만과 공항 연계 등이 이루어질 경우 동북아시아 물류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륙과 해양 사이에 위치한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 전통적으로 지정학은 국가들이 영토와 사람을 분류하고 통제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언어이자 행위로 이해되어 왔다. 예를 들어, ‘냉전’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국가들이 지구상의 영토를 통제하고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한 언어이자 행동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정학과 정치적 슬로건과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테러에 대한 전쟁’이라는 슬로건은 특정 국가들이 동맹을 맺게 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중앙아시아 기지에 미군이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정학은 두 가지 특징을 드러낸다. 첫째, 지정학은 지정학적 언어 내의 권력 관계를 밝혀내는 학문이자 행위이다. 둘째, ㉠지정학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지정학은 결국 정치와 실천의 장이자 본질적으로 당파적인 것이다. 특히, 지정학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접근은 지정학의 지식이 편파적이라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지정학자들이 서구사회의 특정 국가와 인종, 특권 계급, 그리고 젠더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지정학적 세계에 대한 자기중심적 지식을 주장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지정학자들이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으면서, 세계를 알고 있다는 오만과 편견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라) 미국인 머한(Mahan, 1840-1914)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역사적으로 구분했고, 이러한 구분은 후대에까지 지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머한이 보기에 강대국이란 쉽게 방어할 수 있는 해안선을 지닌 나라들이었다. 머한은 유라시아 대륙을 견제하기 위한 영국과의 동맹을 주장했는데, 그의 의도는 당시 지배적인 영국 해군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증대하는데 있었다. 독일인 하우스호퍼(Haushofer, 1869-1946)는 히틀러 당시 미국은 아메리카를 지배하고, 독일은 유라시아를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와 같은 지정학적 비전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독일의 영토 확장과 식민지 획득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

(뒷면에 계속)

(마) 이제 미국이 유라시아 전체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지역전략을 수립하고 추구해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유라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극동지역에 닷을 내리고 있어야 한다. 도서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는 미국의 정책에 핵심적이다. 하지만 본토 중국과의 협력관계 역시 미국의 유라시아 지정 전략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향후 극동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3대 강국 사이의 상호작용이 위험한 지역 방정식을 빚어낼 것이고,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초래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추축국인 한국 또한 미중 분쟁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미래는 미일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이 분단되어 있고, 불안정한 북한과 점점 더 부유해지는 남한 사이에 전쟁 위협이 상존하는 한 미군은 한반도에 남아 있어야 한다. 한국의 재통일 역시 심각한 지정학적 딜레마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미국이 통일한국에 그대로 남게 된다면, 그것은 중국 입장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된 한국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일한국이 미국 세력의 연장선이 아닐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은 점차 중국의 확고한 정치적 영향권 혹은 교묘하게 중국의 권위가 존중되는 권역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일본, 즉 재무장을 향해 매진한다거나 중국과의 단독적 적응을 시도하거나 하는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역할의 종언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다시 미국이 관리하는 유라시아 전체에 걸친 정치적 균형의 형성을 가로막을 것이다.

* 추축국: 가장 중요한 국가.

1-1. 제시문 (가)는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 이 두 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찾아 쓰시오. (100자±20자) [8점]

1-2. 제시문 (다)의 ‘㉠지정학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제시문 (라)의 머헨과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을 비판하시오. (150자±20자) [12점]

1-3. 제시문 (다)의 ‘㉡페미니스트적 접근’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한국 관련 내용을 비판하시오. (250자±20자) [15점]

【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폭력이란 무엇인가? 총탄이나 경찰 곤봉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다. 우리의 도시 한 귀퉁이에서 젓먹이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도 폭력이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없는 나라는 재난의 나라이다. 누가 감히 폭력에 의해 질서를 세우려는가?/ 십칠 세기 스웨덴의 수상이었던 악셀 옥센스티르나는 자기 아들에게 말했다.“얘야, 세계가 얼마나 지해롭게 통치되고 있는지 아느냐?”사태는 옥센스티르나의 시대 이래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지도자가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희생이라는 말은 전혀 위선으로 변한다. 나는 과거의 착취와 야만이 오히려 정직하였다고 생각한다./ 햄릿을 읽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웃집에서 받고 있는 인간적 절망에 대해 눈물짓는 능력은 마비당하고, 또 상실당한 것은 아닐까?/ 세대와 세기가 우리에게 쓸모도 없이 지나갔다.’

(나) “국가의 부에 대해 설명했어요. 맥초우컴차일드 선생님이 자, 이 학급이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하자. 이 국가에 오천만 파운드의 돈이 있다면 이 국가가 부유한 나라가 아니냐? 20번 여학생, 이 국가가 부유한 나라이고 너는 부자나라에 사는 게 아니냐? 하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니?” 루이자가 물었다. “루이자 아가씨, 모르겠다고 했어요. 누가 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 얼마라도 제 돈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면 부유한 나라인지 아닌지, 제가 부자나라에 사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질문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숫자로 계산된 생각이 아니니까요.” 씨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네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루이자가 말했다. “그래요, 루이자 아가씨. 이제는 저도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자 맥초우컴차일드 선생님은 제게 다시 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교실이 커다란 도시라고 가정하자, 시민이 백만 명인데 일 년에 스물다섯 명만이 길에서 굶어죽는다, 그렇다면 그 비율에 대한 너의 의견은 무엇이나? 하고 물었어요. 저는—더 나은 답변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굶어 죽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백만 명이든, 백만 명의 백만 배이든 마찬가지로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 답변 역시 틀린 거지요?” “물론 틀렸지.” “그러자 맥초우컴차일드 선생님은 한 번 더 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더듬기(stutterings)가 있다고 했어요.” “통계자료(statistics)겠지.” 루이자가 말했다. “그래요, 루이자 아가씨—그 말은 항상 말더듬기를 상기시키는데, 저의 또 다른 잘못이지요—해난사고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다고 했어요. (맥초우컴차일드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일정 기간 동안 십만 명의 선원이 장거리 항해를 떠났는데 그중 오백 명만이 익사했거나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퍼센트가 죽은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가씨, 제가 말하기를,” 이때 씨씨는 자기의 크나큰 실수를 크게 뉘우치며 고백하는 것처럼 심하게 흐느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씨씨?” “죽은 사람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는—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아가씨, 저는 영영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 같아요.” 씨씨가 말했다.

(다음장에 계속)

(다) 우리는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애덤 스미스가 이상적인 합리성이란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연구 중 많은 부분을 감정적 합리성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할애했다. 이는 그가 특정한 감정의 방향 제시를 공적 합리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믿었기 때문이다. 『도덕감정론』에서 그는 ‘분별 있는 관찰자’라고 이름붙인 존재를 설명한다. ‘분별 있는 관찰자’의 판단과 대응은 공적 합리성의 패러다임을 (지도자에게든 시민에게든)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관찰자에게서 인위적으로 구성된 상황은 그가 세계에 대해 갖는 합리적 관점의 일부인 사유, 정서, 환상 등에 따름으로써 합리적인 도덕적 입장을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분별 있는 관찰자’는 우선 하나의 관찰자이다. 즉, 그는 자신이 목격하는 사건에 개인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지만, 그들을 염려하는 친구로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과 행복에 관계된 감정을 갖거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편향성을 갖지 않으며, 자기 앞에 놓인 상황에 대해 객관성을 지니고 살펴본다. 물론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들을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보들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여과된 것들이다. 다른 한편 그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감정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 그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능력 가운데 하나는 그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각각의 처지와 느낌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힘이다.

(라) 나는 민주적인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고 배양할 때 낯선 이들의 대면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왔다. 경험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꿀 수 있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보는 눈이 경험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노숙인이 다가와 돈을 달라고 한다. 그가 요구한 것을 내가 주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제쳐놓고, ‘타자성’과의 이러한 대면의 질은 내가 어떤 상상력을 결부시키는가에 좌우된다. 그 상상력은 내가 타자성에 어떻게 접근하여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얻는지를 결정짓는다.

‘㉠두려운 상상력’의 렌즈를 낀다면 나는 이 사람을 위협으로 바라본다. 그는 수염이 덩수룩하고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 나는 그가 신체적 선택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험을 해석하는 다른 렌즈가 있다. 사회학자 밀스가 말한 ‘㉡사회학적 상상력’이 그것이다. 이제 노숙인은 미국사회의 흠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을 안전망이 없다는 것, 성인 노숙인의 4분의 1 정도가 참전 용사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나는 그를 뒤로 한 채 걸어가면서 소셜 (social) 엔지니어가 되어 구제 프로그램에서 수입 재분배 전략 등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한다.

또 다른 렌즈는 ‘㉢연민의 상상력’이다. compassion을 글자대로 해석하면 ‘누군가 함께 느낀다는 것’이다. ‘함께’라는 작은 단어 뒤에 커다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사전에 따르면 그 단어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company의 의미는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연민의 시선으로 노숙인을 바라볼 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사람과 나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데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다. 우리 삶과 운명은 서로 얽혀 있다. 따라서 나는 행동해야 한다.” 당신이 정확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한지를 내가 지시할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내려야 할 윤리적 결정이다. 나의 요점은 간단히 말해 이렇다.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경험이 시민 공동체 의식을 심화하고, 민주적인 마음의 습관을 배양하도록 하려 한다면 연민적인 상상력의 렌즈가 필수적이다.

2-1. 아래 벤덤의 논의에 입각해 (나)의 ‘맥초우컴차일드 선생’의 입장을 설명하시오. (130자±20자) [10점]

벤덤은 쾌락과 고통을 인간 행위의 이유로 보고, 쾌락은 행복이요 고통은 불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개인의 주된 관심사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성취하는 것이므로 개인들의 집합체인 사회의 도덕과 법 제도 또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많은 쾌락을 보장해 주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그는 이 원리의 과학적 적용을 위해 모든 쾌락과 고통에는 질적인 차이란 없으며 오직 양적 차이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의 계산법을 고안하였다.

2-2. (다)의 ‘분별 있는 관찰자’와 연결되는 것을 (라)에 제시된 세 가지 상상력(㉠, ㉡, ㉢) 중에서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00±20자) [15점]

2-3. (가)의 “폭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글 (다), (라)를 통해 제시하시오. (250±20자) [15점]

(뒷면에 계속)

【 문항 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기 계발 담론이 어떻게 자아를 문제화하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서사적 열개를 찾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을 사업 혹은 기업으로 대상화하며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기업가로 주체화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의 기업가란 단순히 경제적인 은유, 소규모의 사업을 창업하는 경제적 행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대 조직의 기업에서부터 어린이, 가정주부,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의 주체가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윤리적인 주체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벤처 정신, 경영 마인드란 개념으로 한국사회에서 이미 성행하다 최근에서 '기업가 정신'이란 이름으로 확산된 개념과 동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계발 담론은 "자아를 기업가의 그것으로"라는 '자기 지배the government of self'의 테크놀로지 이자 권력이라 할 수 있다.

(나) "선진 산업 국가 노동자의 1/3은 과학과 엔지니어링, R&D(Research & Development), 기술 기반 산업, 미술, 디자인, 음악 분야, 또는 보건·금융·법률 등 지식 기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 '창조 계급'의 임금은 미국 내 임금을 다 합한 것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을 모두 합친 금액과 같다."(리처드 플로리다)
미국의 경영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2002년 <창조 계급의 부상>을 통해 우리 시대의 경제가 '창조 경제'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창조 경제의 핵심에는 '창조 계급', 창조성을 발현하여 그것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말했으며, 그들의 수가 전 세계 노동자의 1/3이라고 말했다. 2005년에 발견된 <도시와 창조 계급>에서 그는 자신의 이론을 더 발전시켰다. "필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인간의 창조성이 경제 성장의 근본 원천이라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어느 정도 창조적이며, 그 창조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관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그가 보기에 도시야말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공간이다. 그는 창조 계급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지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보헤미안 지수'이다. 작가, 디자이너, 음악가, 화가, 사진작가, 무용가 등의 인구 비율을 통해 집계해 낸 이 지수가 높은 장소일수록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도 높다고 말하며, 그는 "한 지역에 보헤미안이 상당한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그 장소에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이러한 창조 경제와 창조 계급의 도래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모든 이가 창조 경제에 편입되어 창조 계급이 되는 것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다) "차라리 도제 시스템이 살아 있을 땐, 연출부든 제작부든 살 수가 있었다." 철수가 말했다. "도제 시스템은 한 팀에 100만원을 주면 최고 선임자가 50을 가져가고 나머지 50을 나머지 다섯이 나누는 그런 거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것 때문에 다들 먹고는 살았다." 말을 받아 숙희가 말했다. "노예제가 노예를 굶기지는 않았다는 것과 비슷하죠. 자유인이 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니까요. 영화 노조가 생기면서 표준 계약서를 쓰게 되자 체감하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2011년 1월,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수상하기도 했던 유망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시나리오 작업을 다섯 번이나 계약했지만 한 번도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 '5타수 무안타'라고 말했다고 한다. 영화가 없으면 시나리오에 들인 노동의 대가가 물거품이 되는 기막힌 현실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갑갑해졌다.

(라) X세대의 걱정 - 잉여로 취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 은 이전 세대들이 경험하고 기록한 걱정과는 다르다. X세대 역시 이들 세대에 고유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전례 없는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가 시작된 이래 각 세대는 자기 세대의 난파선들을 사회적 진공 속에 버려두었다. 이 난파선들은 진보에 '수반된 희생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차에 뛰어 올라타는데 성공해 승차감을 만끽하는 동안 이들보다 덜 영리하고, 덜 기민하고, 약삭빠르지 못하고, 힘이 없거나 덜 모험적인 다른 많은 사람들은 뒤처지거나 만원이 된 차량에 들어가지 못하게 저지당했으며, 그나마 차바퀴에 깔려 완전히 박살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진보라는 차의 좌석과 입석 수는 통상 차에 타려는 승객을 모두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승차는 언제나 선별적이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차에 올라타는 것이 달콤한 꿈이 되었던 것 같다. 진보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이라는 구호 아래 선전되었다. 그러나 차를 계속 달리게 하는데, 속력을 높이는 데, 한때는 협상하고 침략하고 정복하는 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높이까지 오르는 데 이제는 더 적은 (갈수록 더 적은) 사람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현대의 트레이드마크인 진보가 마침내 드러낸 본모습인 것 같다.

3-1. 제시문 (가)와 (나)는 유사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130자±20자) [10점]

3-2. 제시문 (나)에서 '㉠모든 이가 창조 경제에 편입되어 창조 계급이 되는 것만이 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제시문 (다) 및 (라)를 근거로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 주의사항 :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